



이슈리포트

2011년 1분기 수출기업 체감지수와 애로사항

이재우/산업투자조사실 선임연구원

이지아/산업투자조사실 책임조사역

- | | |
|------------------------|-------------------------------------|
| I. 수출기업 체감지수 | II. 2011년 1분기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 1. 2011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 2. 2011년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 수출기업 애로사항 |

요약

1. 2011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수출채산성 평가지수가 하락하여 전기 (102)보다 하락한 98을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94)보다 하락한 89를 기록,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전기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단가(원화 기준) 평가지수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 지수가 큰 폭 상승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플랜트, 석유화학, 선박 산업 등의 수출 증가 폭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104)와 동일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대기업 100, 중소기업 95를 기록, 전기(113, 97) 대비 자금사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두 악화되었음.



2. 2011년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011년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16으로 1분기(106)보다 상승, 수출기업들은 2분기 수출업황이 1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7로 1분기(101)보다 상승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24를 기록, 전기(110)보다 상승하여, 수출물량 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업들은 전망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106로 전기(101)보다 소폭 상승하여, 수출기업들은 자금사정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3.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과 애로사항

- 2011년 1분기 중 수출업황이 개선된 기업은 23.4%이며, 악화된 기업은 24.9%
- 수출업황 개선 기업의 업황개선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69.8%)와 상품경쟁력 상승(34.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한편, 수출업황 악화 기업의 업황악화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47.8%)와 원화환율 변동(42.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수출수요 판단의 경우 산업과 지역에 따라 기업별로 편차가 커서, 수출 경기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분기 중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원자재 가격 상승(75.7%), 원화환율 불안정(63.8%) 및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39.3%)임.



I 수출기업 체감지수

1. 2011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

□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102)보다 하락한 98을 기록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와 수출물량 평가지수가 모두 하락함에 따라 전반적인 수출업황이 전기 대비 악화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전기(94)보다 하락한 89를 기록, 기업들의 수출채산성이 전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단가(원화기준) 평가지수가 100에서 109로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전기(116)보다 상승한 134를 기록함에 따라 채산성이 악화됨.
 - 수출단가는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이 전기 대비 모두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의 상승 등으로 소폭 상승함.
 -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생산원가 평가지수가 대폭 상승하여 비용압박이 심화됨.
 - ※ 원/달러 환율 추이(기간평균): 2010년 2분기 1,164 → 3분기 1,186 → 4분기 1,133 → 2011년 1월 1일 ~ 3월 18일 1,121
 - ※ 원유가격 추이(기간평균, 두바이유 기준): 2010년 2분기 78.2 → 3분기 74.0 → 4분기 84.3 → 2011년 1월 1일 ~ 3월 18일 99.4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플랜트, 석유화학, 선박 산업 등의 수출증가폭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기(104)와 동일함.
 - 수출계약 평가지수도 전기(105)보다 하락한 103을 기록하여 수출업체들의 계약 성사 건수 증가 폭 역시 전기 대비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도 선박, 섬유류, 석유화학 산업 등을 중심으로 하락하여 전기(102)보다 감소한 96을 기록함.



<표 1>

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1/4
수출업황 평가지수	73	97	112	103	110	117	109	102	98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92	93	102	94	98	113	103	94	89
수출단가 평가지수	107	87	98	92	95	112	103	100	109
생산원가 평가지수	116	104	109	105	109	119	115	116	134
수출물량 평가지수	68	106	112	108	111	122	112	104	104
수출계약 평가지수	67	105	112	109	111	122	112	105	103
자금사정 평가지수	n/a	n/a	107	103	100	108	106	102	96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수출업황이 중소기업보다 더 악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각각 99, 98로 전기(대기업 109, 중소기업 99) 대비 대기업의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남.
-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대기업 93, 중소기업 87을 기록, 중소기업의 채산성 부진이 지속됨.
-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대기업 103, 중소기업 104를 기록, 전기(대기업119, 중소기업 98)보다 수출물량 증가율이 중소기업은 개선된 반면 대기업은 둔화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대기업 100, 중소기업 95를 기록, 전기(대기업113, 중소기업 97)대비 자금사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두 악화됨.

□ 산업별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섬유류, 자동차 등이 크게 악화

- 섬유류는 20포인트 이상, 자동차 산업은 10포인트 이상 전기 대비 하락함.
- 산업별 수출채산성 지수는 섬유류, 선박, 석유화학 등이 20포인트 이상 하락하여 해당산업의 채산성 악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플랜트(110)를 제외한 섬유류(71), 석유화학(76), 선박(82), 전기전자(89) 등의 모든 산업이 기준치(100) 이하를 기록함.
- 산업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플랜트 산업이 전기보다 40포인트 이상 하락, 수출물량 증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선박, 섬유류, 석유화학, 자동차 등 산업을 중심으로 전기보다 하락하여 자금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동남아, 중남미, 일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하락

○ 수출지역별 업황평가지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이 각각 6포인트, 4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유로는 20포인트 가까이 악화됨.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평가지수는 동남아, 중국 등에서 10포인트 이내로 상승하였으나, 유로에서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전기보다 하락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평가지수는 동남아, 중남미, 중국에서 10포인트 내외로 상승하였으나, 유로, 일본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기보다 하락함.

○ 자금사정 평가지수는 동남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수출기업이 하락함.

<표 2> 2011년 1분기 기업규모 · 업종 · 지역별 평가지수

구 분		수출업황 평가지수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수출물량 평가지수		자금사정 평가지수	
		2010 4/4	2011 1/4	2010 4/4	2011 1/4	2010 4/4	2011 1/4	2010 4/4	2011 1/4
규모별	대 기 업	109	99	99	93	119	103	113	100
	중 소 기 업	99	98	92	87	98	104	97	95
업종별	석 유 화 학	101	92	96	76	105	96	106	94
	철강 및 비철금속	102	104	93	90	106	110	109	103
	전 기 · 전 자	94	97	85	89	94	100	95	93
	기 계 류	111	103	99	90	110	111	104	98
	자동차(부품 포함)	113	98	99	96	113	111	108	100
	조 선	106	100	106	82	103	100	109	95
	섬 유	100	76	97	71	89	91	98	85
	플 랜 트	105	110	95	110	130	90	100	100
지역별	미 국	103	97	93	88	100	100	100	95
	중 국	100	96	91	93	102	107	104	99
	일 본	95	97	95	89	102	100	98	94
	유 로	117	99	108	83	117	105	105	98
	동 남 아	101	109	87	97	104	111	100	102
	중 남 미	88	90	81	80	88	100	94	85



2. 2011년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

□ 2분기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116으로 1분기(106)보다 상승

- 수출기업들은 세계적인 경기회복세 지속 영향으로 내년 2분기 수출업황이 1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¹⁾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107로 1분기(101)보다 소폭 상승하여 수출기업들은 수출채산성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124로서 전기(110)보다 상승하여, 세계적인 경기회복세로 전기보다 수출증가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업들은 전망하고 있음.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106을 기록, 전기(101)보다 약간 상승하여, 수출기업들은 자금사정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기업규모별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 대비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수출경쟁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외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전기 대비 채산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표 3>

수출업황 전망지수 추이

구 분	2009				2010				201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수출업황 전망지수	73	107	112	117	110	123	117	113	106	116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79	106	105	108	101	108	111	106	101	107
수출단가 전망지수	93	103	97	99	97	100	105	102	102	109
생산원가 전망지수	105	110	103	105	106	110	110	109	112	125
수출물량 전망지수	72	110	117	118	112	129	121	114	110	124
수출계약 전망지수	72	111	117	118	111	129	121	113	109	123
자금사정 전망지수	n/a	n/a	n/a	111	103	111	110	106	101	106

1) 본 설문은 3월 2일~11일 동안 실시되어 일본 대지진 등이 반영되지 않음.



-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상승하였으나, 수출증가율 개선 폭이 중소기업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대기업 108, 중소기업 106을 기록, 전기(대기업 108, 중소기업 98)대비 중소기업이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대기업보다 더 개선될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 수출업황 전망지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개선됨.

- 섬유류와 선박 산업을 제외한 플랜트, 전기전자, 철강 및 비철금속, 기계류 등 대부분의 산업이 상승함.
- 산업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선박과 섬유류 산업은 하락한 반면, 전기전자, 플랜트, 기계류, 철강 및 비철금속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승하며, 수출채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산업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도 선박 산업을 제외한,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 철강 및 비철금속 등 대부분의 산업이 상승하여 내년 2분기 수출증가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플랜트, 섬유류 산업을 제외한, 선박,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승하여 자금사정이 대체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수출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상승

- 수출기업은 중국, 유로, 중남미 등 모든 지역의 수출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수출지역별 수출채산성 전망지수는 중남미 지역은 하락한 반면, 중국, 일본, 동남아, 유로, 미국 등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하여 수출채산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수출지역별 수출물량 전망지수는 일본, 중국, 미국, 유로 지역이 크게 상승하는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하며 수출증가율 상승이 예상됨.
- 수출지역별 자금사정 전망지수는 유로, 미국, 동남아, 중국 등 대부분의 지역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개선될 전망이다.



<표 4> 2011년 2분기 기업규모 · 업종 · 지역별 전망지수

구 분		수출업황 전망지수		수출채산성 전망지수		수출물량 전망지수		자금사정 전망지수	
		2011 1/4	2011 2/4	2011 1/4	2011 2/4	2011 1/4	2011 2/4	2011 1/4	2011 2/4
규모 별	대 기 업	110	118	104	107	118	125	108	108
	중 소 기 업	105	116	100	107	107	124	98	106
업 종 별	석 유 화 학	105	109	100	103	116	116	103	106
	철강및비철금속	107	119	104	109	115	126	99	106
	전 기 · 전 자	103	123	97	114	101	129	101	108
	기 계 류	109	117	104	109	115	127	101	104
	자동차(부품 포함)	109	113	101	103	111	123	98	102
	조 선	109	109	106	91	125	109	109	118
	섬 유	114	110	103	96	109	118	103	100
	플 랜 트	105	130	100	110	130	140	125	110
지 역 별	미 국	110	120	101	105	113	128	99	106
	중 국	102	115	99	109	106	125	100	105
	일 본	105	114	98	107	102	123	102	103
	유 로	110	121	107	113	116	129	101	111
	동 남 아	104	115	95	103	112	122	105	112
	중 남 미	94	105	113	110	119	125	88	90



Ⅱ

2011년 1분기 수출기업 업황개선·악화 원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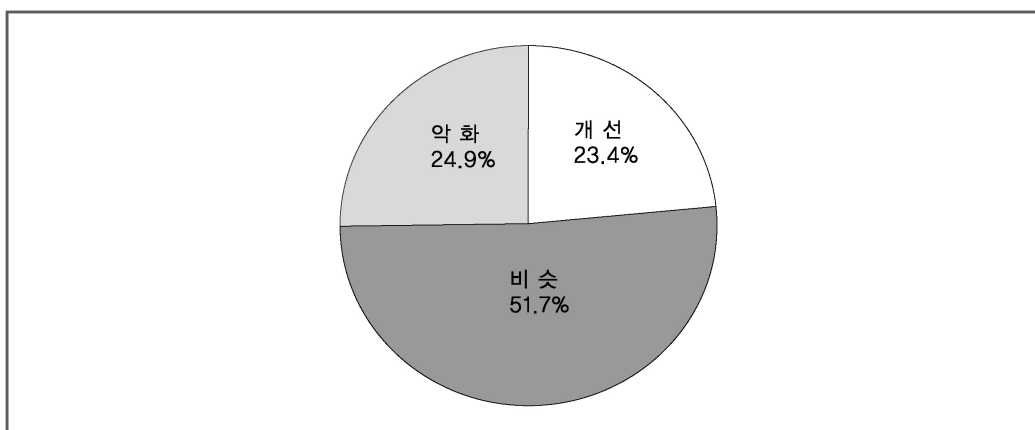
1. 수출업황 개선과 악화 원인

□ 2011년 1분기 중 수출업황이 악화된 기업이 개선된 기업보다 다수

- 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23.4%, 악화되었다는 기업은 24.9%로 나타남.
- 전기(개선 23.6%, 악화 19.4%)보다 수출업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감소하고,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는 증가함.
- 나머지 51.7%는 수출업황이 2010년 4분기와 비슷하다고 답하여, 비슷하다고 체감한 기업의 수가 전기(57.0%)보다 감소함.
- 산업규모별로는 개선된 기업 중에서 대기업 비중이 중소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분류별로는 철강 및 비철금속, 기계류, 플랜트 산업이 업황개선 기업의 비중이 악화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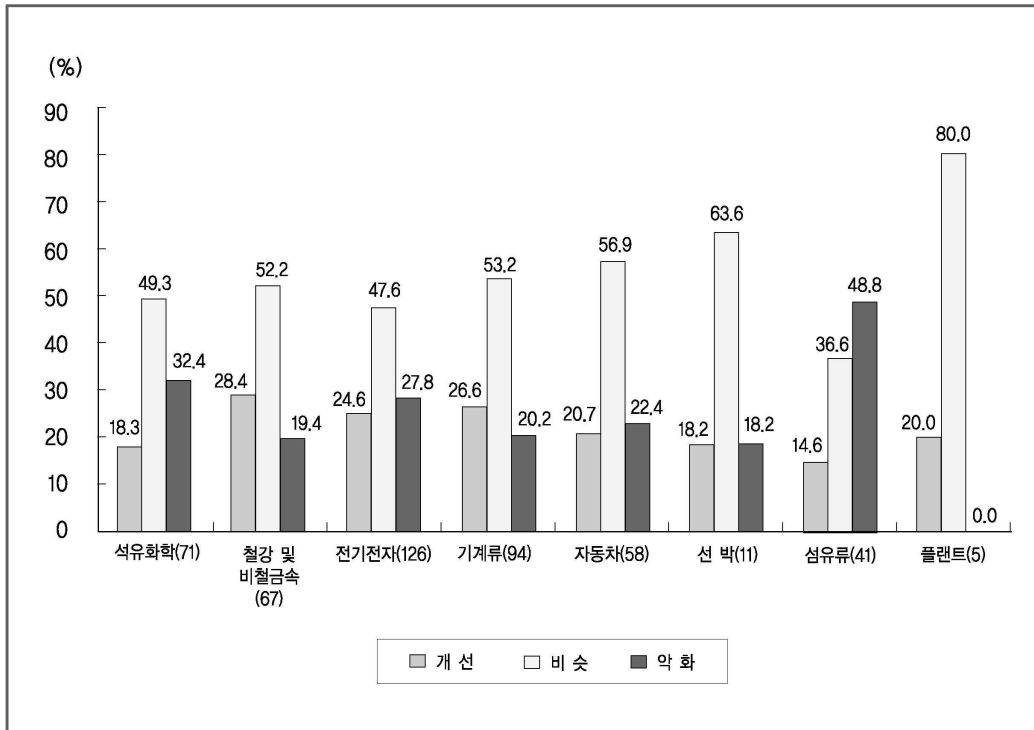


주: 총 기업 수는 453개임.



<그림 2>

산업별 수출기업의 업황개선 및 악화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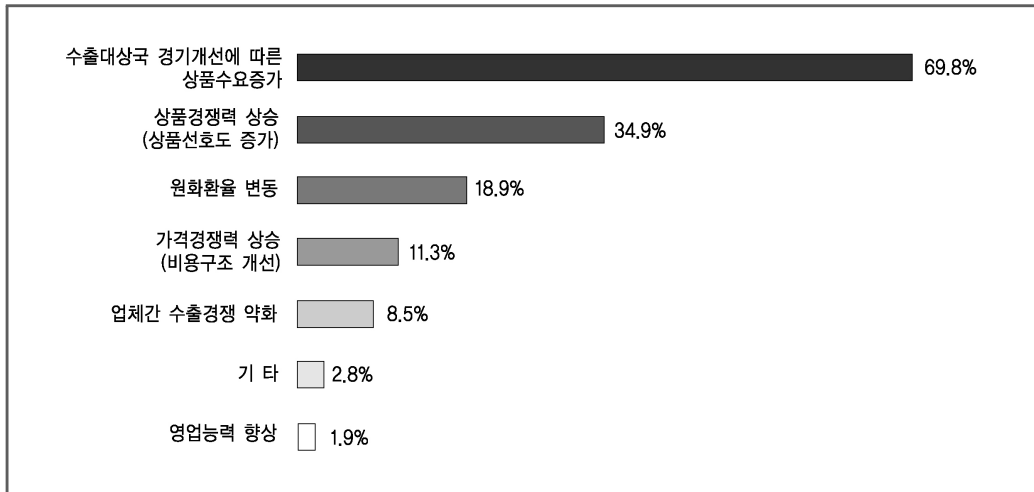
□ 수출기업 업황개선의 원인은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기인

- 수출업황 개선기업은 업황개선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 수요 증가(69.8%)와 상품경쟁력 상승(34.9%)을 선택함(복수응답).
- 자동차(91.7%)을 비롯하여, 기계류(88.0%), 철강 및 비철금속(68.4%), 전기전자 (64.5%), 석유화학(53.8%), 섬유류(50.0%) 등 대부분 산업에서 업황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대상국의 경기개선에 따른 상품수요 증가를 지적함.
- 플랜트의 경우 상품경쟁력 상승(100.0%)을 개선요인으로 꼽고 있음.



<그림 3>

2011년 1분기 수출업황 개선 요인



주: 업황개선 기업 수는 106개임.

<표 5> 2011년 1분기 기업규모 · 업종 · 지역별 수출업황 개선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상승	가격 경쟁력 상승	수출 대상국 경기개선	업체간 수출 경쟁 약화	원화 환율 변동	계절적 요인
규모별	대 기 업	40.7	14.8	63.0	3.7	18.5	0.0
	중 소 기 업	32.9	10.1	72.2	10.1	19.0	1.3
업종별	석 유 화 학	38.5	23.1	53.8	7.7	23.1	7.7
	철강 및 비철금속	21.1	21.1	68.4	10.5	26.3	0.0
	전 기 전 자	48.4	9.7	64.5	9.7	16.1	3.2
	기 계 류	28.0	4.0	88.0	0.0	16.0	0.0
	자동차(부품 포함)	16.7	8.3	91.7	0.0	8.3	0.0
	조 선	50.0	50.0	50.0	0.0	0.0	0.0
	섬 유	33.3	0.0	50.0	33.3	33.3	0.0
	플 랜 트	100.0	0.0	0.0	0.0	0.0	0.0
지역별	미 국	29.6	11.1	74.1	14.8	14.8	0.0
	중 국	40.0	8.0	80.0	4.0	12.0	0.0
	일 본	33.3	16.7	50.0	16.7	16.7	0.0
	유 로	50.0	12.5	68.8	6.3	12.5	6.3
	동 남 아	27.8	0.0	61.1	5.6	33.3	0.0
	중 동	0.0	100.0	10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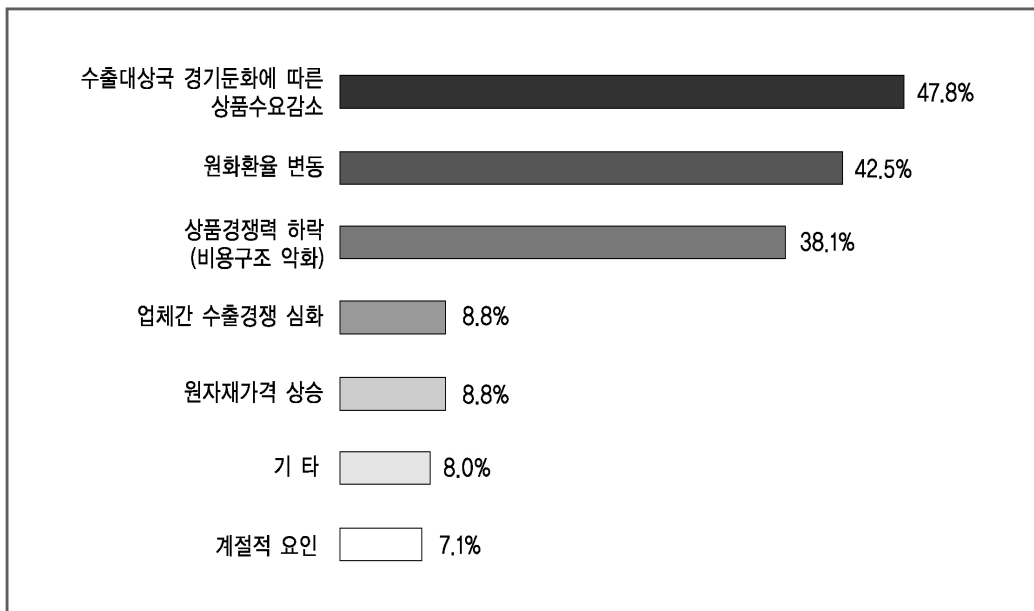


□ 수출업황 악화의 원인은 상품수요 감소와 원화환율 변동에 기인

- 수출업황 악화기업의 악화 원인으로는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47.8%)와 원화환율 변동(42.5%)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복수응답).
- 철강 및 비철금속(69.2%), 기계류(57.9%), 전기전자(54.3%), 섬유류(50.0%) 등 대부분의 산업이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가 업황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응답함.
 - － 수출수요의 산업별, 상품별, 지역별 편차가 커서 기업들의 수출수요에 대한 판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 선박의 경우 수출업황이 악화된 요인으로 수출대상국 경기둔화에 따른 상품수요 감소(47.8%) 외에도, 원화환율 변동(42.5%)과 가격경쟁력 하락(38.1%)을 꼽고 있음.
- 자동차의 경우 첫 번째로 원화환율 변동(53.8%), 두 번째로 가격경쟁력 하락(46.2%)을 꼽고 있음.

<그림 4>

2011년 4분기 수출업황 악화 요인



주: 업황악화 기업 수는 113개임.



<표 6> 2011년 1분기 기업규모 · 업종 · 지역별 수출업황 악화 요인 (복수 응답)

단위: %

구 분		상품 경쟁력 하락	가격 경쟁력 하락	수출 대상국 경기악화	업체 간 수출 경쟁 심화	원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규모별	대 기 업	3.6	57.1	42.9	3.6	42.9	10.7
	중 소 기 업	4.7	31.8	49.4	10.6	42.4	8.2
업종별	석 유 화 학	4.3	47.8	43.5	8.7	43.5	13.0
	철강 및 비철금속	0.0	38.5	69.2	15.4	38.5	23.1
	전 기 전 자	8.6	25.7	54.3	17.1	42.9	0.0
	기 계 류	5.3	47.4	57.9	10.5	26.3	0.0
	자동차 (부품 포함)	0.0	46.2	15.4	0.0	53.8	7.7
	조 선	0.0	50.0	50.0	0.0	50.0	0.0
	섬 유	0.0	25.0	50.0	5.0	45.0	20.0
	플 랜 트	0.0	0.0	0.0	0.0	0.0	0.0
지역별	미 국	0.0	46.9	34.4	6.3	50.0	9.4
	중 국	0.0	34.4	62.5	18.8	28.1	6.3
	일 본	6.7	26.7	46.7	0.0	53.3	13.3
	유 로	17.6	35.3	41.2	11.8	47.1	0.0
	동 남 아	0.0	75.0	37.5	0.0	50.0	12.5
	중 남 미	0.0	0.0	50.0	0.0	50.0	50.0

2. 수출기업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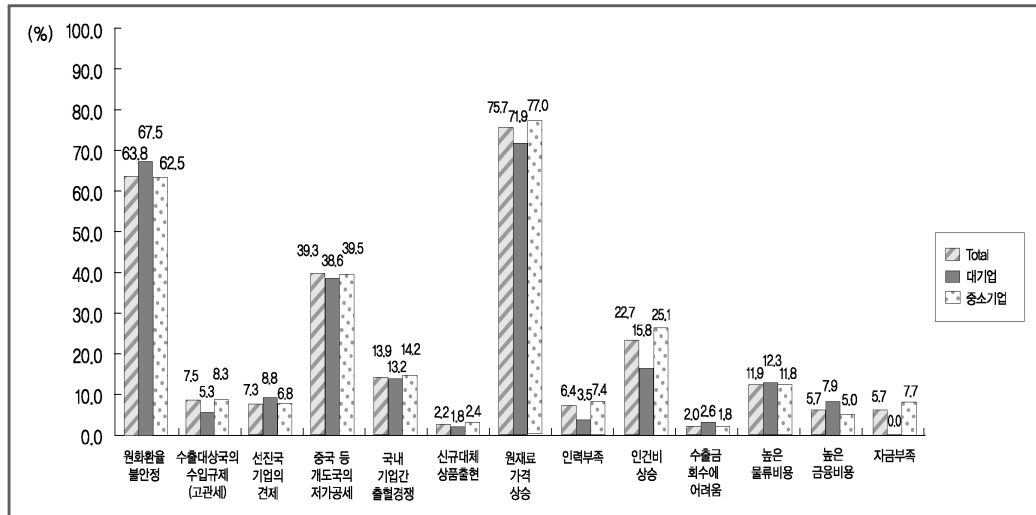
□ 수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원화환율 불안정

- 수출기업은 수출의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75.7%), 원화환율 불안정(63.8%),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39.3%)를 꼽고 있음.
- 원자재 가격 상승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기업의 비중이 전기(62.8%)와 비교하여 높아졌음.
 - 원화환율 불안정의 경우 원/엔 환율이 전기보다 감소하여 수출기업들의 원화의 강세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는 전기(74.0%) 대비 감소함.



<그림 5>

2011년 1분기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 대부분 산업의 경우 위의 세 가지 외에도 인건비 상승(22.7%), 국내기업간 출혈 경쟁(13.9%), 높은 물류비용(11.9%)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표 7>

2011년 1분기 산업별 수출기업 애로사항 비율

단위: %

구 분	석유 화학	철강 및 비철금속	전기 전자	기계류	자동차	조선	섬유류	플랜트
원화환율 불안정	62.0	59.7	65.1	63.8	72.4	45.5	61.0	60.0
원재료 가격 상승	90.1	86.6	68.3	69.1	74.1	72.7	87.8	20.0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39.4	43.3	45.2	38.3	32.8	54.5	39.0	0.0
국내기업 간 출혈경쟁	8.5	22.4	10.3	18.1	13.8	0.0	12.2	20.0
인건비 상승	22.5	17.9	21.4	23.4	27.6	9.1	24.4	20.0
선진국 기업의 견제	8.5	6.0	8.7	10.6	3.4	18.2	0.0	0.0
높은 물류비용	8.5	11.9	15.1	8.5	15.5	0.0	9.8	20.0
높은 금융비용	4.2	9.0	2.4	5.3	5.2	9.1	12.2	20.0
신규대체상품 출현	2.8	3.0	2.4	2.1	1.7	0.0	2.4	0.0
수출대상국의 수입규제 (고관세)	4.2	6.0	7.1	8.5	10.3	27.3	0.0	0.0
자금부족	1.4	3.0	4.8	8.5	3.4	18.2	9.8	0.0
인력부족	4.2	0.0	7.9	6.4	10.3	18.2	2.4	20.0
수출금 회수에 어려움	1.4	3.0	0.8	4.3	0.0	0.0	2.4	0.0